

우범기 시장, '전주 대변혁' 비전 공유

완산구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동별 주요 사업 청취·의견 나뉨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구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을 대상으로 각 동별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전라북도 마이스(MICE)산업 핵심 거점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중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해 공유했다.

시는 마이스산업 핵심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현재 종합경기장 석면 철거 공사에 착수했으며, 컨벤션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건축기획용역 실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컨벤션 건립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8



우범기 전주시장이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들과 비전을 공유했다.

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조성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완산병커는 오는 6월 시험 운영을 목표로 현재 콘텐츠 및 기반 시설 구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완산병커를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곤지중 부근 임시 공영주차장 40면과 전주천서로 128면(매곡교~완산교), 전주천동로 41면(완산교~코오롱상가아파트) 노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향후 완산병커 진입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우 시장은 이날 완산구 동장들과의 회의에 이어 오는 5월 3일에는 덕진구 16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을 대상으로 시청 현안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만큼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구의 날' 기념 소등 행사

전주시, 오늘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전주시는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해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로, 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를 슬로건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첫날 지구의 날 소등행사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청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한옥 정문과 호남제일문 등 지역 내 주요 상징 공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시는 공동주택 등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후변화주간 동안 시청 로비에서 폐현수막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병뚜껑 등을 활용해 만든 키링, 지갑, 도장, 펜슬 홀더 등 다양한 재활용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등 행사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10분간 지구를 밝히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데 많은 시민이 동참할 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축제 안전관리 촘촘히 챙긴다

안전관리실무위, 국제영화제·정원산업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전주시는 지난달 수립한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 서민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됐으며, 이태원 헬러윈이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

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수립된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연례적으로 다종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관련 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축제의 경우 주최·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게 했으며, 지난해 제정된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소규모 행사(순간 최대 인원 500명~1000명 이하)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경우 축제 2주 전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의 적정성 △구조·구급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

에 대해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하게 된다. 이후 행사 1~2일 전에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 처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교통안전 대책 △화재·인명피해 방재 조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정선 안전정책과장은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병행으로 축제에 대한 불안 요소를 차단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가 봄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비만 예방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주시설공단, 어린이 수난사고 예방 모의훈련

119 신고·수상 위급상황 구조절차·수중안전 대응 등 훈련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즈음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난사고 예방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19일 완산수영장 다이빙장에서 실제 수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초등학생과 부모가 한 조가 돼 훈련에 참가했다.

공단은 안전을 위해 곳곳에 안전관리자 9명을 배치했으며, 완산소방서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소속 전문구조원들도 물속에서 수중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날 훈련은 119 신고, 수상 위급상황 구조절차, 수중안전 대응, 구명조끼 착용 후 유영 방법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또 훈련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들이 수난사고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어린이 수상 안전사고는 모의훈련만한 예방책이 없다"며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수상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주인 없는 옥외간판 일제정비

철거사업 시행... 내달 10일까지 동의서 작성 접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주인 없는 옥외간판 철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떠난 사업주들을 대신해 무료로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노후화로 인해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폐업·이전·파손으로 인해 버려진 벽면이용간판(가로·세로), 돌출간판, 자주 이용 간판 등이다.

정비 규모는 30여 개이며, 건물주 또는 관리자 등 자격 신청이 있는 사람이 간판 사진과 간판 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덕진구 건축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덕진구는 접수 기간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추락 위험도와 미관저해 정도를 확인한 뒤 철거 대상을 확정하여, 5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봉정 구정장은 "이번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봄맞이 비만 예방 집중 홍보활동 나서

전주시가 봄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비만 예방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이 활기찬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가볍게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비만 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누리집 활용 비만 예방 홍보 △걷기 동아리 운영 △체성분 검사 및 맞춤형 운동·영양상담 등 비만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은 이날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을 시작으로, 오는 29일에는 전북대학교 구정문 버스킹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날 전주한옥마을을 지나가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비만 예방의 필요성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생활 습관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김진선 보건소장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평소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립하고 신체활동을 증진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